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의 상의 분석과 학습 도모

김 선 희
(서울대학교)

Kim, Sun-hee. 2002. **Aspect of Naked Infinitives of English Perceptual Report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519-536. This paper is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aspectual nature of naked infinitives(NIs) of English perceptual reports. Higginbotham(1983) proposes that only 'active' or 'transient' verbs can be used as NIs of English perceptual reports, but 'state' verbs cannot. This is called "confinement to the active or transient". But there will be one problem when NIs of English perceptual reports are negatives. This is why the meaning of negative NIs of English perceptual reports may be static, which isn't in line with "confinement to the active or transient". There are similar problems with 'state' NIs of English perceptual reports. In this paper some of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with the "Event Structure" of Pustejovsky(1991). According to Pustejovsky(1991), 'process' and 'transition' verbs have sub-eventual individuation units, but state verbs have no such units. It is the units that make it possible for 'process' and 'transition' to be perceived. As a result 'process' and 'transition' verbs are suitable for NIs of English perceptual report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unsolved. Moreover some state verbs are grammatically used as NIs of English perceptual report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se state verbs have "potentiality of transition", and the potentiality comes from only the combination of the two parts of the complement - the subject and the naked infinitive. And the potentiality causes the "Event Structure" of Pustejovsky(1991) to be modified. And this modification makes it possible for us to explain aspect of NIs of English Perceptual Reports. It is concluded with some implication for Korean learner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영어의 지각동사(Perceptual Reports) 원형부정

사(naked infinitive) 보문(complement)에는 어떠한 술어(predicate)가 사용될 수 있으며, 왜 그러한 술어만 사용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기존의 Higginbotham(1983)의 논의에 따르면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행동(active predicate)'이나 '변화(transient predicate)'를 나타내는 술어는 사용될 수 있지만, '상태' 술어(stative predicate)¹⁾는 사용될 수 없다. Higginbotham(1983)은 이러한 현상을 "행동·변화 술어 제한(confinement to the active or transient)"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지각동사 구문은 Higginbotham(1983)의 분석에 잘 부합한다. 그러나,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부정의 원형부정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상태 술어가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된 경우에도 문법적인 문장이 있으므로 Higginbotham(1983)의 "행동·변화 술어 제한"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는 어떤 술어가 사용될 수 있고, 왜 그러한 술어만 사용될 수 있는지를 Pustejovsky(1991)의 "사건구조(event structure)"의 틀을 빌어 와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과정(process)'과 '변화(transition)'의 구조를 지니는 술어는 더 작은 하위 사건(sub events)으로 분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간으로 인해 지각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태' 술어는 '과정'과 '변화'의 술어와는 달리 더 작은 하위 사건으로 분간될 수 없고 그 결과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상태 술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전체 문장이 문법적인 문장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형부정사 보문은 결국 Pustejovsky(1991)의 기제로는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이 기제를 수정·확장하여, 변화를 나타내는 술어뿐만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술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문법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영어의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적합한 술어는 분간 단위를 가지는 Pustejovsky(1991)의 사건 유형 '과정'과

¹⁾통상적으로 상태 술어는 진행형이나 명령형이 불가능한 술어를 일컫는다.

‘변화’, 그리고 확대하여 도출된 ‘변화’의 구조를 지니는 술어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의 검토 및 비판

2.1. Barwise(1981)의 상황의미론

Barwise(1981)는 존재하는 어떤 세상 M의 임의의 한 부분을 M 안에서의 ‘상황(situation)’이라 하고, 여기에는 사건(event, episodes)과 일(state of affairs)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특히 이 상황 중에서 사람에게 의해 시각적으로 인식된 상황을 ‘장면(scenes)’이라고 한다. 상황은 세상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특정 장면에서의 지각의 대상들이 내보이는 특질과 그것들간의 관계, 그리고 그 때의 시간과 공간,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포함한다. 또 한편으로 장면은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세상이 언어와 맺은 관계를 물려받는다. 그리하여 어떤 문장이 참일 때, 그 문장의 참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에서 John이 지각하는 것은 Mary가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Mary가 달리는 행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낱말의 상황 - Mary의 다리가 움직이는 상황 따위 - 까지 모두 포함된다.

(1) John saw Mary run.

다시 말해서 (1)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Barwise(1981)를 따르면 (1)과 같은 긍정문은 위와 같이 설명할 수 있지만, 부정의 원형부정사 보문을 가진 (2)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2) John saw Mary not leave.

즉 Barwise(1981)에 따르면, 사람(perceiver)은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 - [Mary not leave] - 의 진리치를 참이 되게 하는 ‘장면’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3)이 나타내는 바가 (2)의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의 진리치를 참이 되게 하므로 (3)에 부합하는 (4)와 (5)까

지 그 장면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3) John saw Mary in some state incompatible with her leaving.

(4) John saw Mary fall down.

(5) John saw Mary play the piano.

즉 (3)에 따르면 (4)나 (5)의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도 Mary가 떠나는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 - [Mary fall down], [Mary play the piano] - 을 하고 있으므로 (2)의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의 진리치를 참이 되게 해주어 결과적으로 (2)가 (4)나 (5)의 의미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2)에서 John이 보는 것은 'Mary가 떠나지 아니하는 상황'이지 (4)나 (5)의 지각동사 보문이 나타내는 상황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Barwise(1981)의 논의는 '상황'이나 '장면'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3), (4), (5)에서 보다시피 이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2.2. Higginbotham(1983)의 개별사건분석

Higginbotham(1983)은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을 '장면'이 아닌 '사건(event)'으로 해석하고, Davidson(1967a)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사건을 '개체(individual entity)'로 분석한다. Higginbotham(1983)은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는 행동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술어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행동·변화 술어 제한(confinement to the active or transient)'이라 부른다. 즉 사람이 어떤 상황을 지각한다는 것은 그 상황이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는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행동 술어(active predicate)나 변화 술어(transient predicate)만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6)은 문법적이지만 (7)은 비문법적이라고 한다.

(6) I saw John buy a house.

(7) *I saw John own a house.

그리고 Higginbotham(1983)은 (8)과 같은 지각동사 구문에서 [not leave]라는 성분은 동사 'leave'의 반의어인 'stay'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8) I saw Mary not leave.

즉, Barwise(1981)의 분석에서 문제가 되었던 [Mary not leave]를 [Mary stay]라는 하나의 사건(individual event)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8)에 대한 Higginbotham(1983)의 분석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즉 (8)의 [Mary not leave]를 [Mary stay]로 해석했으나, Higginbotham(1983) 자신의 논의에 따르자면, 이 'stay'라는 동사는 행동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술어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이므로 앞서 언급한 '행동·변화 술어 제한'에 어긋나므로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Higginbotham(1983)에서 (8)의 [Mary not leave]를 [Mary stay]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Neale(1988)은 Higginbotham(1983)의 개별사건분석에 대하여 (9)와 (10) 등의 예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다. 즉, 고액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 상황'을 설정하면 (9)도 (10)에서 보다시피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9) Psmith owned a house.

(10) I saw Psmith own a house.

즉, Higginbotham(1983)에 따르면 'own'은 행동이나 변화의 술어가 아니어서 (10)이 비문법적이어야 하는데, Neale(1988)처럼 '도박 상황'을 설정하면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Neale(1988)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물론 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0)은 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이 때의 동

사 'own'은 '상태' 동사가 아니라 '변화' 동사이다²⁾. 그 결과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는 행동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술어만 가능하다는 Higginbotham(1983)의 주장은 적어도 이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Higginbotham(1983)이 '행동·변화 술어 제한'이 어떠한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면 (9)와 (10)에서와 같은 Neale(1988)의 이의제기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9)와 (10)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11), (12), (13)의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된 'sit', 'hang', 'stand'는 모두 상태 술어이므로 Higginbotham(1983)의 '행동·변화 술어 제한'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될 수 없는 술어이다.

(11) I saw John sit in his usual place.

(12) *I noticed the picture hang on the wall.

(13) *I saw the lamp stand in the corner. (Mittwoch, 1990)

Higginbotham(1983)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비문이어야 하는데, (12)와 (13)만 비문이고 (11)은 정문이다. 이에 대해서 Mittwoch(1990)는 (11)의 'sit'은 의지적으로(volitionally) 사용되었기 때문에 문법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태 술어가 의지적으로 사용되면 왜 문법적인지에 대해서는 Mittwoch(1990) 역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유사한 경우로 Parsons(1990)는 아래 (14)의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인 [it stand]에서 'stand'는 비정신적(nonmental) 상태 동사이므로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될 수 있는 것 같다고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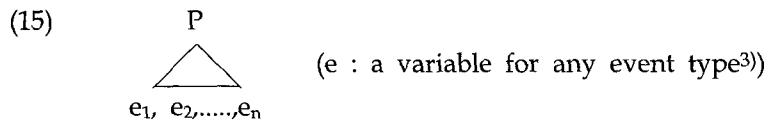
(14) For three hours we watched it stand under the tree without moving. Finally we concluded it was the statue of gorilla, and not the gorilla itself. Then it moved, and we discovered we were wrong. (Parsons, 1990:189-190)

²⁾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1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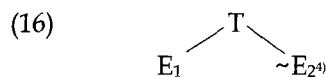
그러나 Parsons(1990) 역시 Mittwoch(1990)와 마찬가지로 상태 술어 중에서 다른 상태 술어와는 달리 왜 비정신적 상태 술어만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기술만 해놓고 있다. 이것 역시 Higginbotham(1983)의 개별사건분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이다.

3. Pustejovsky(1991)의 사건구조

Pustejovsky(1991)는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유형(event type)을 '과정(process)', '변화(transition)', 그리고 '상태(state)'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은 저마다 각각 다른 사건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Pustejovsky(1991)의 논의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먼저 '과정'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사건들의 연속 - e_1, e_2, \dots, e_n - 으로 하나 하나 구분할 수 있는 단위(identifiable unit)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나타내는 사건의 유형은 (15)와 같다. 여기에는 run, push, drag 따위의 동사가 속한다.



'변화'는 문장에 주어진 술어와 이에 대립(opposition)되는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서(Jackendoff, 1972; Lakoff, 1970; Wright, 1963) '성취(accomplishment)'와 '도달(achievement)'로 나뉜다. 사건 유형은 (16)과 같으며, give, open, build, die, destroy 등이 여기에 속한다.



³[e_1, e_2]로 표시되는 임의의 사건 e 가 의도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e 는 하위의 사건(subevent)인 e_1, e_2 를 가지고 있고 이 때 전자인 e_1 은 후자인 e_2 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며, 사건 e 안에는 더 이상 계제하는 다른 하위 사건은 없다.

⁴ E와 ~E는 서로 대립되는 의미 자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취는 (17)처럼 주어진 술어에 대하여 대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질과 변화를 야기 시킨 행동이 둘 다 언급된 형태를 말하고, 도달은 (18)처럼 변화를 야기 시킨 행동에 대한 뚜렷한 언급이 없는 형태를 가리킨다⁵⁾.

(17) Mary built a house.

(18) Mary died.

'상태'는 '과정'과는 달리 더 이상 구분할 수 있는 단위로 자를 수 없는 하나의 연속체로 *sick*, *love*, *know* 등이 속하며, 사건 구조는 (19)와 같다.

(19) S
 |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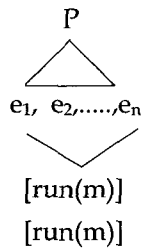
이제 Pustejovsky(1991)의 '과정', '변화', '상태'를 각각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적용해 보자. (20)의 동사 *run*은 Mary의 다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동작 즉, e_1, e_2, \dots, e_n 이라는 하위 사건으로의 분간을 통해서 지각이 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과정' 동사 *run*이 사용된 (21)은 문법적인 문장이다.

(20) a. Mary ran.

b. ES⁶⁾:

LCS':

L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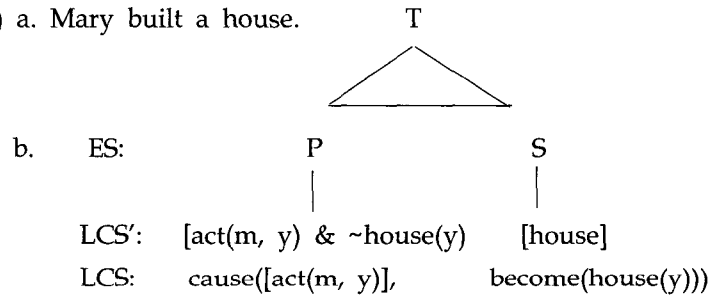
⁵⁾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9쪽의 (22)-(24) 예문 참조

⁶⁾ES는 Pustejovsky(1991)의 event structure이고, LCS'는 Pustejovsky(1988)의 어휘명사층위(LCS-like structure)이며, LCS는 Jackendoff(1983)나 Levin&Rappaport(1988)의 어휘개념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를 나타내는 것이다.

(21) I saw Mary run.

(22a)는 Mary가 어떤 행위를 가한 결과 y가 집(house)이 아닌 (~house(y)) 상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집(house)이라는 상태로 변화한 것 즉, 성취를 나타낸다.

(22) a. Mary built a house.



(23) I saw Mary build a house.

성취도 과정과 마찬가지로 P와 S라는 하위 사건으로의 분간을 통해서 지각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취의 동사 build가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된 (23)도 문법적인 문장이다.

마찬가지로 (24)에서도 어떤 행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Mary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죽은 상태로 변한 변화 즉, 도달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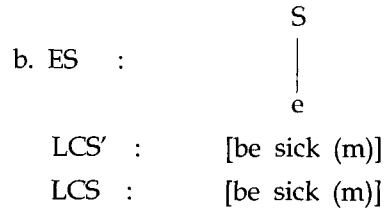
(24) a. Mary died.

b. I saw Mary die.

이 역시 P와 S라는 하위 사건으로 분간될 수 있으므로 지각이 가능하다. 따라서 (23)과 마찬가지로 (24b)도 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태동사를 살펴보자.

(25) a. Mary is sick.



(26) *I saw Mary be sick.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태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 과정처럼 작은 부분으로 쪼개어진다거나, 아니면 변화처럼 주어진 술어와 대립되는 의미 자질로의 분리와 같은 구분 가능한 어떠한 단위도 가지지 않으므로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상태는 e라는 하나의 상황으로 나타날 뿐 분간될 수 없으므로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태 동사 be가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된 (26)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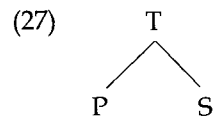
이제 앞에서 지적된 (8)과 (10)을 Pustejovsky(1991)의 사건 구조로 접근해 보자.

(8) I saw Mary not leave.

(9) Psmith owned a house.

(10) I saw Psmith own a house.

(8)의 [Mary not leave]의 의미 안에는 Mary가 떠나지 못하고 'stay'하게되는 실랑이 장면 즉, Mary는 'leave'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말리는 장면 따위가 포함될 수 있다. 이는 (27)의 사건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실랑이 장면은 P에 대응하고 그 결과 'stay'하게 된 상태는 S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8)의 [Mary not leave]는 명확한 구분 단위를 갖게되어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으로 적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Neale(1988)이 제기한 (10)의 [Psmith own a house]의 'own'도 해결된다. 즉 Psmith가 도박에서 이겨 판돈으로 'a house'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거나 가져오는 행동은 Pustejovsky의 사건구조 T의 두 요소 중에서 P에 대응되고, 그 결과 Psmith가 'a house'를 소유하게 되는 것 - own - 은 S에 대응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은 Higginbotham(1983)은 사건구조 T의 요소 중에서 P에 대응되는 부분을 제외한 채 S에 대응되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위의 논의에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11)의 [John sit]와 (14)의 [it stand]는 Pustejovsky(1991)의 사건구조로도 그 문법성이 설명되지 않는다.

(11) I saw John sit in his usual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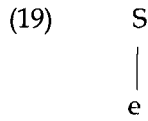
(12) *I noticed the picture hang on the wall.

(13) *I saw the lamp stand in the corner. (Mittwoch,1990)

(14) For three hours we watched it stand under the tree without moving. Finally we concluded it was the statue of gorilla, and not the gorilla itself. Then it moved, and we discovered we were wrong. (Parsons,1990:189-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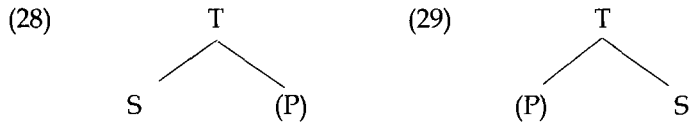
즉 (11)의 'sit'와 (14)의 'stand'는 Pustejovsky(1991)에 따르면 '상태' 술어여서 (19)의 사건구조를 지니므로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술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다시피 상태 술어가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된 (11)과 (14)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결국 (11)과 (14)의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Pustejovsky(1991)의 사건 구조 모형에 수정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4. 제안

본 장에서는 2, 3장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Pustejovsky(1991)의 사건구조를 아래 (28), (29)와 같이 수정·확장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인 (11)의 [John sit]와 (14)의 [it stand]는 (28)의 구조로 나타내면 S와 P의 분간으로 인해서 지각이 될 수 있으므로 두 문장이 모두 문법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즉, (11)과 (14)의 'John'과 'it'는 Smith(1991)에 따르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닌 행위주(agent)이기 때문에, (11)의 'his usual place'에서 'John'은 앉은 상태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14)의 'it' - gorilla - 는 실제로 움직였다. 만약 (14)에서 'it'가 'the statue of gorilla'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it stand]는 더 이상 지각동사 보문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12)와 (13)에서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으로 [the picture hang]과 [the lamp stand]가 사용되어 그 결과 전체 문장이 비문인 것으로 어렵

⁷Smith(1991)은 통제(control), 의지(volition), 그리고 힘(energy)의 요소로 동사를 분류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으면 '행동(activity)'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태(stative)'라고 한다. 그래서 아래 문장에서 'Jane'은 이러한 요소와 관련되므로 i)의 'stood'는 '행동'으로 보며, 'the statue'는 관련이 없으므로 ii)의 'stood'는 '상태'로 본다.

i) Jane stood in the doorway.

ii) The statue stood in the doorway.

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던 Pustejovsky(1991)의 사건구조 유형 P와는 달리, (28)에서 P를 괄호 안에 넣어서 나타낸 것은 P가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고,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즉, (14)의 [it stand]에서는 'it' - gorilla - 가 실제로 움직여서 P가 실현된 것이므로 괄호가 벗겨져야 하고, (11)의 [John sit]는 'John'이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P를 그대로 괄호 속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Pustejovsky(1991)의 사건구조에서 추론해 보면 P가 e_1, e_2, \dots, e_n 으로 분간되고 T가 P와 S로 분간됨으로써 지각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S와 P의 분간 연쇄인 (28)도 지각이 될 수 있는 사건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에 상태술어 - sit와 stand - 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문의 주어의 자질 - 행위주(agent) - 과 연결되어 (11)과 (14)가 문법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비로소 설명된다.

이와는 달리 (12)와 (13)의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인 [the picture hang]과 [the lamp stand]에서 picture나 lamp는 '의지(volition)'나 힘을 지니고 있지 않아서 행위주(agent)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한 자체 내에서의 변화의 가능성⁸⁾은 없으므로 (19)와 같은 '상태'의 사건구조를 가지게 되어 결국 분간 단위가 없어 지각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 결과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12)와 (13)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29)의 사건구조는 괄호만 제외하면 Pustejovsky(1991)의 사건구조인 '변화'와 동일하다. 이 때, (28)과 마찬가지로 (29)에서의 괄호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Pustejovsky(1991)의 사건구조 '변화'는 변화의 가능성과 변화의 실재를 함께 나타낼 수 있도록 (29)와 같이 도식화하여야 더 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각주 7의 i), ii)와 (13), (14)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문장들에서 동일한 술어 - 각각 'stood'와 'stand' - 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⁸⁾여기서 변화의 가능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의 주어이다. Smith(1991)을 따라 보문의 주어가 통제(control), 의지(volition), 힘(energy)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 그 뒤의 술어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

고, 하나는 상태 술어로 해석되며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서 어떤 술어의 특성을 논할 때는 술어 자체만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술어와 연결된 주어도 함께 고려해야만 해당 술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상에서의 논의 결과 알 수 있었다. 즉,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의 주어와 동사는 각각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여있는 것인데, Higginbotham(1983)과 Pustejovsky(1991) 모두 이 점을 놓친 채, 술어 자체에만 집중함으로써, (11)의 [John sit]에서의 'sit'과 (14)의 [it stand]에서의 'stand'의 문법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와 같은 논의는 영어를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영어의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 구조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문에 사용될 수 있는 술어를 선택할 때 특정 술어의 사용 가능여부를 판별하게 해주는 한 가지 기준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영어의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을 우리말로 옮겨서 판단하는 것이다. 즉,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을 우리말로 옮겼을 때, 피동 구문 한 가지로만 해석되는 경우 그 보문은 비문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의 [the picture hang]과 (13)의 [the lamp stand]는 우리말로 옮기면 각각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것], [램프가 놓여져 있는 것]으로 된다. 이 때, 각각의 해석에는 '리'와 '이'라는 피동 접사⁹⁾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걸다'에서 피동 접사 '리'가 합쳐져서 '걸리다'가 되고, '놓다'에서 피동 접사 '이'가 합쳐져서 '놓이다'가 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걸려져'는 '걸-리-어져'로, '놓여져'는 '놓-이-어져'로 분석된다. 그리고 또한 이 보문들은 각각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것], [램프가 놓여져 있는 것] 이외의 다른 말로는 달리 옮길 방법이 없다. 즉, 이들은 우리말의 피동형만 가능하여 결국 비문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11)의 [John sit]과 (14)의 [it stand]는 각각 [John이 앉아 있는 것], [고릴라가 서 있는 것]으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피동형이 아닌 다른 형태도 가능하므로 이 보문들은 정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11)의 [John sit]은 [John이 앉혀져 있는 것]으로도 옮길 수 있어서 '히'라

⁹⁾우리말의 피동 접사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있다.

는 피동 접사가 있는 피동문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동문이 아닌 다른 경우로도 옮길 수 있으므로 이 문장은 결국 정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2)의 [the picture hang]에서의 'the picture'가 마술사가 마법을 부린 결과 그림으로 변신을 한 것이라면 이 경우는 [그림이 매달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때 (12)는 정문이 될 수 있다.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피동문이 아닌 다른 문장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의 '리'는 '매달리-다'에서 보다시피 피동의 접사가 아니라, 어기(base)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영어의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앞에서 언급했던 실재하는 '변화'와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앞 단락의 우리말의 '피동형' 해석은 모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실재하는 '변화'와 '변화의 가능성'은 앞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우리말의 '피동형' 구문만 조금 더 살펴보자. 우리말의 피동형은 말 그대로 누군가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한 것을 일컫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문의 주어 스스로가 행위주(agent)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보문의 상태로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12)의 [the picture hang]이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것]으로 해석될 때는 'the picture'가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우리말의 피동형으로만 해석되어 결국 (12)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만, [그림이 매달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the picture'가 '의지'를 가진 행위주로 스스로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12)는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결국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의 주어가 '의지'를 지니지 못해서 술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P)로 나타낼 수 없어 결국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28)과 (29)로 도식화 시켜 놓은 것이나, 우리말의 피동형만 가능한 구문으로 문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나 모두 같은 맥락 - 변화와 변화의 가능성 - 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 영어의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으로 적절한 술어는 과정과 변화,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는 술어라는 것을 보이고, 특히 변화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말의 피동문으로만 해석되는 지각동사 원형부정사 보문은 비문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면, 보다 용이하게 영어의 지각동사 구문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원형부정사 보문을 이루는 주어와 술어의 밀접한 관계를 내세워 문맥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5.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영어의 지각동사 구문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어떠한 술어가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Higginbotham(1983)의 논의를 Pustejovsky(1991)의 사건구조의 기제를 빌어 논의해 보았다. 즉,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될 수 있는 술어를 '행동·변화 술어 제한(confinement to the active or transient)'으로 설명한 Higginbotham(1983)의 논의를, 술어 일반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형식적으로 도식화 시켜 놓은 Pustejovsky(1991)의 사건구조의 기제를 빌어 와서 '과정'과 '변화'의 구조를 지니는 술어는 구분 단위(individuation unit)로의 분간을 통해서 지각이 가능하므로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상태' 술어는 분간될 수 없어서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논의해 보였다. 그 결과 Higginbotham(1983)에서 애매 모호하게 남아있던 문제들을 Pustejovsky(1991)의 사건구조인 '변화'로 도식화시킴으로써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서의 그 적법성을 명쾌히 설명할 수 있었다. 한편 Pustejovsky(1991)의 기제로도 나타낼 수 없는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은 4장에서 Pustejovsky(1991)의 기제를 확장하여 도출된 '사건구조' 유형을 이용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술어들의 문법성도 설명해 보였다. 또한 Pustejovsky(1991)의 사건구조 '변화'의 요소 중에서 P를 그 주어와 연관을 시킨 결과 변화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괄호 속에 넣어서 나타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설명해 보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을 우리말로 옮겼을 때, 피동문 한 가지로만 해석되면 그 원형부정사 보문이 있는 문장은 비문법적인 것은 4장에서 논의한 수정·확대된 (28)과 (29)에서의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동일한 술어일지라도

그 술어의 주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전체 문장의 문법성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물론 지각동사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사용된 술어를 주어와 함께 고려함으로써 얻어낸 성과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영어의 지각동사 구문의 원형부정사 보문에 적합한 술어는 보문의 주어를 함께 고려한 결과, 분간단위를 가지는 Pustejovsky(1991)의 '과정', '변화' 그리고 Pustejovsky(1991)의 사건 구조의 기제를 수정·확대하여 도출된 '변화'의 구조를 지니는 술어로 매듭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 Bach, E. 1986. The algebra of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5-16.
- Barwise, J. 1981. Scenes and other situations. *Journal of Philosophy* 77, 369-397.
- Croft, W. 1987. *Categories and Relations in Syntax: The Clausal-Level Organization of Inform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Davidson, D. 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81-95.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Garey, H. 1957. Verbal aspect in French. *Language* 33, 91-110.
- Herweg, M. 1991. Perfective and imperfective aspect and the theory of events and states. *Linguistics* 29, 969-1010.
- Higginbotham, J. 1983. The logic of perceptual reports: An extensional alternative to situation semantics. *Journal of Philosophy* 80, 100-127.
- Higginbotham, J. 1985. On semantics. *Linguistic Inquiry* 16, 547-593.
- Higginbotham, J. 1989. Elucidations of meaning.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465-518.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Lakoff, G. 1970. *Irregularity in Syntax*.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Mittwoch, A. 1988. Aspects of English aspect: On the interaction of perfect, progressive and durational phras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1, 203-254.
- Mittwoch, A. 1990. On the distribution of bare infinitive complements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26, 103-131.
- Neale, S. 1988. Events and logical form. *Linguistics and Philosophy* 11, 303-321.
- Parsons, T. 1989. The progressive in English: Events, states, and process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213-241.

- Parsons, T.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A Study in Subatomic Semantics*. MIT Press.
- Perry, J. and J. Barwise. 1981. Semantic innocence and uncompromising situations. In P. A. French, T. E. Uehling and H. K. Wettstein, ed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4.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ustejovsky, J. 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 47-81.
- Smith, C. S. 1991.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enny, C. 1987. *Grammaticalizing Aspect and Affected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Vendler, Z. 1967. *Linguistics and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 Verkuyl, H. J. 1989. Aspectual classes and aspectual composi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39-94.
- Vlach, F. 1983. On situation semantics for perception. *Synthese* 54, 129-152.
- Wright, G. H. von. 1963. *Norm and Acti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김선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9번지

삼익3차@303-903

우편번호: 441-438

전화: 031) 292-1041

E-mail: sunheepius@hanmail.net

접수일자: 2002. 9. 16.

게재결정: 2002. 12. 5.